

치 사

청명하고 풍요로운 절기의 기운과 같이 수행정진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부처님의 향기를 널리 알리어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일념으로 진력을 다하시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불제자로서 불은에 보답하고, 만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에 따라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해 왔습니다. 더욱이 불교는 이 땅에 전래된 이후, 1700여년 동안 민족의 화합과 민생의 평온을 위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민족종교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와 수승한 전통을 이어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함께 탁마(琢磨)하며 원력을 실천하겠다는 ‘양천불교연합회’의 출범을 마음 깊게 축하드리며, 소중한 정진과 노고를 치하합니다.

급변하는 21세기에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공존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일은 무엇보다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언제나 우리 곁에 빛으로 존재하지만, 사부대중 모두 한결같은 서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오늘을 실천하고 내일을 숙고하는 공덕은 매우 소중할 것입니다.

한 줌의 흙이 쌓여 큰 산을 이뤄내듯이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의 힘과 지혜가 모인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모여 울울창창(鬱鬱蒼蒼)한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출범하는 ‘양천불교연합회’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여 울창한 큰 숲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뜻 깊은 자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연합회 임원님과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제불보살님의 지혜와 가피가 항상 함께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10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